화두와 씨름해 한 생각 지속되게 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서인완월문생각(犀因翫月紋生角)이요 상피뇌경화입아(象被雷驚花入牙)이로다.

물소가 밤에 달을 구경하니 뿔에서 문채가 남이요, 코끼리가 우레 소리에 놀라니 꽃잎이 어금니 안으로 들어감이로다.

일구(一句)의 진리를 파헤치는 이 최상승의 선법(禪法)은 알기가 무척 어렵거니와 담담해서 별 맛이 없는 고로, 소인지배(小人之輩)는 대개 소승법(小乘法)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라. 그러나 이 법을 닦아 행(行)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대도(大道)의 진리를 얻을 수 없음이라. 부처님의 대도의 진리는 허공보다도 넓고 넓어 가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외도(外道)들이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할 수가 없고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할 수가 없는 법이다.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삼하구순동안 불철주야 참선정진을 한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다.

금일은 삼하구순(三夏九旬)의 날들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하안거 해제일이라. 만약 대중들이 구순안거(九旬安居) 동안에 목숨을 떼어놓고 모든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를 다 놓아 버리고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들었을진대는, 개개인이 모두가 장부(丈夫)의 활개를 쳤을 것이다.

산승이 회상(會上)을 열어 몇 번이나 결제를 하고 해제를 맞이했던가! 다시금 해제일이 돌아온 금일, 과연 이 해제일을 맞아 장부의 활개를 칠 자가 있는가! 그런데 '알았다' 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대체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 그 허물을 뉘우치고 각성(覺醒)하여, 해제일이 되었다고 이산 저산으로 정신없이 유랑(流浪)을 다니거나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불수(不修)의 만행(萬行)으로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됨이라.

이 공부란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 정진의 열기를 식히지 않아야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안거의 수만 늘어날 뿐, 수행의 진취가 없는 것이 이 때문이라.

다시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마음속의 모든 반연을 다 쉬어 버리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하고 씨름해서 한 생각이 간단(間斷)없이 지속되게끔 하여야 할 것이라. 한 생각이 지속되는 이 삼매(三昧)에 들게 되면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음이라.

수행자는 대오견성(大悟見性)만이 해제하는 것이라고 다짐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발심하고 발원하여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만번 하여야 할 것이라. 〈중략〉

중국의 오대산(五臺山)은 예로부터 문수보살 도량(道場)이라고 하여, 문수보살을 예배하고 친견하고자 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당시에, 이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있었다. 오대산을 찾아가는 스님들이 그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면, 노파는 "바로 쭉 가시면 됩니다"하고는, 그 스님이 너 댓 걸음 걸어가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말했다. 길을 묻는 스님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趙州) 선사께 이 일을 말씀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그 노파를 혼내주겠다"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지혜의 눈이 열린 이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그 뜻을 아는 법이다. 조주 선사께서 즉시 그 노파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는 다른 스님들처럼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자 노파 역시 다른 스님들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쭉 가시오"라고 했다.

조주 선사께서 몇 걸음 옮기시자, 이번에도 노파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했다. 조주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절로 돌아오셔서 대중들에게, "내가 그 노파를 혼내주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부처님의 진리의 눈이 있다. 대체 어느 곳이 조주 선사께서 그 노파를 혼내준 곳인가? 산승(山僧)이 그 노파를 보건대는, 백주(白晝)에 도적을 지어 천 사람 만 사람을 기만하고 있음이요, 조주 선사를 보건대는, 후백(侯白)의 도적이라 하더니, 다시 후흑(侯黑)의 도적이 있음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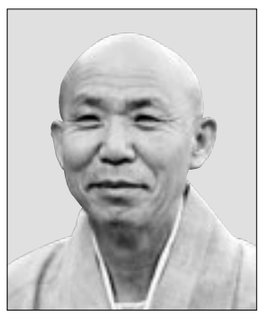
어느 날 조주 선사께서 행각(行脚)시에 한 암자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있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암주(庵主)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을 내미니, 조주 선사께서 "물이 얕아서 이곳에는 배를 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다.

또 어느 암자를 방문하셔서, "있고, 있느냐" 하시자, 이 암주(庵主)도 역시 주먹을 내밀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주 선사께서, "능히 주기도 하고, 능히 빼앗기도 하며, 능히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禮拜)하고 가셨다.

두 암주(庵主)가 똑같이 주먹을 내밀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보는 바가 다르냐!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조주 선사의 기봉(機鋒)을 알겠는가? 〈하략〉

불법이 세간법, 세간법이 불법이로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법원재세간(法元在世間)이요
어세출세간(於世出世間)이라
출세간법은 원래 세간에 있나니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야 하느니라.

본분 상에서 말하자면 결제가 곧 해제이고 해제가 곧 결제입니다. 결제할 줄 아는 자가 해제할 줄도 압니다. 만약 결제와 해제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다면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마른 것은 결제법입니다. 무성한 것은 해제법입니다. 결제법은 털어내는 공부이니 마를수록 좋고 해제법은 더하는 공부이니 무성할수록 좋습니다. 마른 것은 출세간법이고 무성한 것은 세간법입니다. 마른 법을 써야할 때는 가차 없이 마른 법을 쓰고 무성한 법을 써야할 때는 과감하게 무성한 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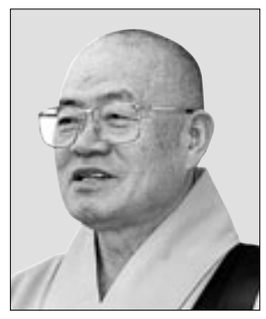
절집에서 오래 머문 운암과 담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간 법 출세간법을 나누는데 익숙했지만 절에 온지 얼마 안 된 어린 사미는 아직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눌 줄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눌 줄 모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나눌 줄 알게 되며, 나눌 줄 알게 된 이후에는 다시 불이법(不二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길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깨닫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더라도 그 곳은 세간이며 도를 깨달은 이후에는 어디에 있더라도 그 곳은 출세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眼目)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법즉세법(佛法卽世法)이니 기가간시제비야(豈可揀是除非耶)며 세법즉불법(世法卽佛法)이니 영수척속숭진야(寧須斥俗崇眞耶)리오

불법 그대로 세간법이거늘 어찌 옳은 것을 가려내고 그른 것을 제거 하겠는가? 세간 법 그대로 불법이거늘 어찌 속계(俗界)을 배척하고 진계(眞界)만을 숭상하겠는가?

알지 못하면 해제가 아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기괴암굴사자서(奇怪岩崛獅子棲)하고 청수심곡교룡거(淸水深谷蛟龍居)로다. 사미용수능발취(獅眉龍鬚能拔取)하고 취저롱금요사인(吹笛弄琴了事人)이로다.

기괴한 바위굴에는 사자가 머물고 맑은 물 깊은 계곡에는 교룡이 살고 있다. 사자의 눈썹과 용의 수염을 능히 뽑고 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희롱해야 일 마친 사람이로다.

금일 해제일이니 삼신산 풍경을 환견요철마(還見了徹)아

약아요철자(若也了徹者) 인댄 차도일구래(且道一句來) 하라

나개시진면목(那箇是眞面目)고? 양구(良久)에 일할(一喝) 운(云)

춘개화추성실(春開花秋成實)하고 하녹음동백설(夏綠陰冬白雪)하니

여시만법(如是萬法)이 시수가풍(是誰家風)인고? 회마(會)아

약야불회(若也不會)인댄 문하해제(云何解制)리요 청제대중(請諸大衆)하노니

일념반조(一念反照)하야 즉하료철대사(卽下了徹大事)어다.

오늘은 해제날이니 삼신산 풍경을 도리어 투철히 보았는가? 만약 투철히 본 자일진댄 한마디 일러보라. 어느 것이 진면목인고?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여름에는 녹음 짙고 겨울에는 흰 눈 오니 이와 같은 만법이 누구의 가풍인고?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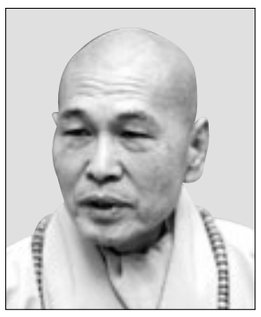
만약 또한 알지 못했을진댄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요. 모든 대중에게 청하노니 한 생각 반조해서 즉하에 생사일대사를 요달할 지어다. 〈중략〉

제각만사상(除却萬思想)하고 긴파승두간(緊把繩頭看)하라. 반조착안시(反照着眼時)에 요득생사필(了得生死畢)하리다.

만 가지 생각을 제하고 긴하게 화두를 잡아 간하라. 반조 착안할 때에 생사 마침을 요달해 얻으리라.

是邪是正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중흥선사(仲興禪師)가 도오선사(道悟禪師) 회하에서 시봉하고 있을 당시 한번은 도오 스님께 차를 올리는데 스님께서 중흥스님에게 "사(邪)인가?, 정(正)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중흥 스님은 도오 스님 앞으로 나아가 정면으로 도오 스님 존안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오 스님께서는 "사(邪)는 항상 사(邪)이고 정(正)은 항상 정(正)이다"라고 하셨지요.

중흥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오 스님께서 되물으시길 "그렇다면 자네의 견해는 무엇인가?"하니 중흥 스님은 도오 스님이 잡고 계시던 찻잔을 빼앗더니 반문을 하였습니다.

"사(邪)인가?, 정(正)인가?"

도오 스님께선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시며 "자네는 나의 시자라고 일컬어 질만 하구나!"하시니

중흥 스님께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도오 스님과 중흥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正), 사(邪)란 말 속에는 깊은 선리(禪理)가 들어있습니다. 소위 "삿된 사람이 정법(正法)을 말하면 바른 법도 삿되게 되고 바른 사람이 사법(邪法)을 말하면 삿된 법도 바르게 된다"는 말이 그런 것이지요. 명의가 독약인 비소를 처방하면 좋은 약이 되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邪)는 항상 사(邪)이고 정(正)은 항시 정(正)"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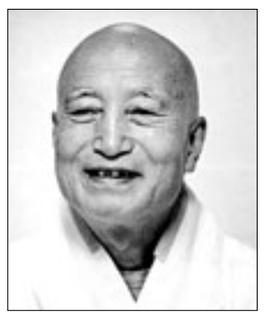
선(禪)은 자주, 해탈, 안정이 있으며 즐거움이 생기는 원천입니다. 선에는 보물이 아주 많아 늘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의 경계에도 집착은 금물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그것은 환(幻)이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쁨에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 헛된 환의 경계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금강반야경에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니 마음이란 것은 환영이요, 무상하여 잡을 수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것이기에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단박에 해탈하게 됩니다.

어떠합니까? 금번 하안거가 즐겁고 좋았습니까?

마음(心)은 종잡을 수 없고 변화가 무궁하여 달리는 말이나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무궁하기로 선리(禪理)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로써 설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리로써 해석을 합니다. 우주세간에는 사실 속에 도리가 있고 도리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수미산이 한 알의 겨자씨에 들어가기도 하고 겨자씨 한 알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이 그러한 뜻입니다. 〈하략〉

무료함이 성불 이르게 한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자기(自己)의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의 바퀴에서 헤매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첫째는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계율이 청정해야 한다.

삼계는 인과의 세계이고 오음의 세계이다. 오음과 습성과 번뇌를 없애려면 계행으로 수도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 계정혜 삼학은 만고에 규범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생에 지은 집착과 업력 때문인데, 선(禪)을 수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단조로우며 무료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 무료와 단조로움을 꿰뚫어야 한다.

이 무료함은 모든 망상을 해소하여 지혜를 내뿜게 하고, 무료는 비할 데 없는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료는 뿌리를 뽑을 수 있고, 이 무료는 인생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이 무료는 결국 성불에 이르게 한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나를 찾는 공부에 쏟아 부어라.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사용하여 윤회의 업, 고통의 업을 만드는데 써서 되겠는가. 수행에 몰두하면 에너지는 수행의 에너지가 되고, 성교할 때는 에너지가 성(性)의 문으로 들어가 성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중성이다. 에너지가 어느 문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곧 그곳의 에너지로 변한다. 에너지를 수행에 쓰면 영성의 에너지로 변한다. 모든 에너지를 도(道)의 문으로 향하게 한다면 탁업(濁業)에 빠져들 일은 없을 것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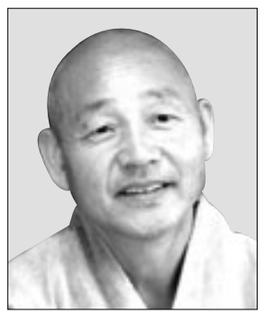
명심이 인(因)이라면 견성은 과(果)이고, 견성이 인이라면 입도가 과이다. 입도가 인이라면 무아가 과이다. 철저한 무아가 성취되기 전에는 용무생사는 있을 수 없다. 지무생사와 계무생사, 그리고 증무생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더 높은 용무생사를 향해 갈 뿐이다. 환경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정력(定力)은 정력이라 할 수 없다. 철수개화(鐵樹開花)요, 화중생련(火中生蓮)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회광반조(回光返照)는 계속 되어야 한다.

천연한 본래 성품 어디에 있나. 밀밀히 빛을 돌려 잊지 마라. 갑자기 의심덩어리가 부서져 없어지면 산하대지를 일시에 거두리라.

천연본성재하방(天然本性在何方)
밀밀회광절막망(密密廻光切莫忘)
맥득의단성분쇄(驀得疑團成粉碎)
대지산하일시수(大地山河一時收)

그대가 약왕(藥王)입니다

영축총림 방장직무대행 성파 스님



여하시병(如何是病)고
별기시병(鼈起是病)이니라
여하시약(如何是藥)고
불속시약(不續是藥)이니라

무엇이 병인가? 잠시 일어나는 망념이 바로 병이다.

무엇이 약인가? 망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약이다.

대중이 여름 석 달 안거 동안에 산문 출입을 삼가며 처절하게 정진해 왔는데 이는 중생의 병을 없애는 약을 찾아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일어나는 망념을 바로 인식하고 그 망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화두참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혼침에 빠지지 않고 성성하게 망념을 살피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문득 안개가 걷힐 때 본래 경치가 그대로 드러나듯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을 먹고 이러한 효험을 보아야만 다시는 병에 끌려 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는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중략〉

본분사를 해결한 사람은 화살 하나로 능히 한 무리의 번뇌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중이 미혹했을 때 일으키는 생각 생각이 병을 만들었으나 이제 그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약을 얻었으니 이 어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납자들은 선불장에서 익힌 지혜력으로 한 무리의 병을 제거하는 양의(良醫)가 되고, 인천의 스승으로 수행과 교화를 법답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신본비식(法身本非食)이요
응화역여연(應化亦如然)이어늘
위장인천익(爲長人天益)하야
자비작복전(慈悲作福田)이로다.

법신은 본래 음식을 먹지 않으시며
응신 화신도 또한 그러하거늘
길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
자비로 복전을 지으셨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 납자들도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교화해야 합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